

# 남북의원의 협회와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김진현  
제헌국회의원유족회장,  
문화일보 회장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이산가족이라고 하면 해방 후 3·8선을 넘어왔거나 또는 6·25 전쟁 때 북에서 남으로 피난 온 북한포들을 주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남을 택함으로써 발생한 이산가족이다.

그러나 진짜 아픈 다른 이산가족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남자, 억압된 상태에서 북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생긴 이산가족이다. 남북된 제헌국회의원 51명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전 공보처장관 오재경(吳在璣) 씨의 부친 제헌의원 오택관(吳澤寬) 목사의 경우 서울에 계시다 남북되었는데, 휴전으로 용진군이 북한에 편입되는 바람에 6·25 전쟁으로 아버지만 북에 잊은 것이 아니라 고향까지 떠기는 결과가 되었다.

51명 남북제헌의원의 비극적 강제남북과 그 후 그 가족사에 드리워진 비극을

열거하자면 한량이 없다.

혹자는 자진 월북자도 있지 않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천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그 가족들의 구체적 증언이 그러한 뿐만 아니라, 북한정부에서 남북된 제헌의원들을 관리하던 탈북자의 수기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조철(趙澈) 씨가 1962년 3월 28일부터 6월 14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한 「죽음의 番月 - 拉北人士 北韓生活記」에 잘 나와 있다. 피랍과 북송과정의 고생과 고통, 병과 고독,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단절의 한을 품고 지내는 처절함, 이용당하고 숙청되는 비극들, 6·25비극의 상징들이 바로 남북된 제헌의원들이다.

## II.

제헌의원들은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조직법 등 관계된 국가창건의 기본법들을 제정한 대한민국의 산모(產母)이다.

제헌절이 국경일이 되고 있는 이유도 8·15광복에 비견할 만한 건국의 기초일이기 때문이다.

제헌국회의원은 총 209명으로서 이중 6·25동란으로 남북된 제헌국회의원은 51명이나 되며, 제2대 국회의원 중 남북된 의원은 23명이나 된다.

남북의원들은 북한 공산군의 서울 점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북한군이 의정부를 거쳐 미아리고개로 육박해 오고 있을 때 이승만 장관의 각료들은 한강을 건너

피난길에 오르고 있었으며, 그 당시 수도사수를 견의한 제2대 국회의원은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너무나 많은 남북화생자가 생겨났던 것이다. 더욱이 제2대 국회는 6·25가 터지기 겨우 6일 전인 6월 19일에 개원되었으므로 공산군이 미아리고개를 넘은 무렵에도 의원 개개인에게 피난 통고조차 할 수 없는 상태였다.

남북된 국회의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남북된 제헌국회의원 명단

구분	성명	선거구	구분	성명	선거구	구분	성명	선거구
1	李德九	양주 갑	19	洪淳五	청원 갑	37	金仲基	장총
2	權厚善	김천 갑	20	金禹植	달성	38	趙重熙	장서
3	吳宅九	영덕	21	洪錫種	김제 읍	39	裴重赫	제화
4	崔錫濟	경주	22	吳澤寬	웅진 갑	40	全水東	동래
5	金致賢	보은	23	金開德	고령	41	李文洙	익산 을
6	具中魯	창녕	24	崔泰圭	장선	42	李萬模	첨원 을
7	申性弼	전주	25	白寬洲	고창 읍	43	黃潤福	진양
8	全水東	고창 갑	26	張謂煥	칠곡	44	姜己文	산청
9	李昌淳	고성	27	姜旭中	함안	45	全景道	함양
10	李周衡	밀양 갑	28	金孝錫	합천 읍	46	許永鑑	부산 갑
11	趙炳漢	문경	29	鄭光好	광주	47	韓錦範	부산 병
12	金庚植	연백 갑	30	趙玉鉉	순천	48	吳龍國	남제주
13	趙秉永	영양	31	金雄鎮	수원 읍	49	朴元澄	남해
14	金用桂	무안 갑	32	金沃周	광양	50	金長烈	완도
15	宋昌植	여천	33	李康雨	진주	51	朴羅煥	철도
16	金東會	진도	34	李錫	경주 읍			
17	盧益煥	순창	35	金東元	서울 용산			
18	陳廷禮	포천	36	趙廷禮				

## 남북화해시대와 민족정신

### 남북된 제2대국회의원 명단

구분	성명	선거구	구분	성명	선거구
1	丘德煥	서천	13	吳夏英	충로을
2	金用茂	무안갑	14	元世勳	충구갑
3	金七星	부산병	15	柳驥秀	용인
4	金惠植	논산갑	16	尹珥璽	서대문을
5	朴性宇	상주갑	17	李相慶	하동
6	朴榮東	완주을	18	李熙聖	이천
7	朴哲圭	예산	19	張達松	동대문
8	白象圭	長濱	20	鄭仁輔	광진을
9	李錫基	청음갑	21	曹圭基	양천을
10	李容勳	창녕	22	趙雲基	성북
11	尹在煥	평택	23	崔丙柱	부안
12	梁在漢	문경			

### III. 해야 할 일

#### 1. 남북의원의 생사 확인과 사망자들의 유해송환

그동안 남북자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 및 북한 양측의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남북자 가족에 대해 연좌제가 적용돼 관련가족들이 남북자들의 생사문제와 송환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남북자 가족들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관련자료의 축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요구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이 남북자를 인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나아가 남북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회유·협박·순차시켜 대남방송 등 공작에 활용함으로써 남북자 가족의 입지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북한체제에 저항하는 남북자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된 사례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생사확인 및 사망자들의 유해송환 그리고 남북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 보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51명의 제헌의원과 23명의 2대 국회의원 중 생존자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적어도 돌아가신 날짜와 돌아가실 무렵의 가족지와 상황만이라도 가족에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 2. 남북 제헌국회의원의 정부서훈 추진

제헌국회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여 청부수립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한 공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69년 12월 17일에 158명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남북된 제헌국회의원 51명에 대하여서는 서훈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가족들의 피맺힌 한을 풀어주고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기서훈한 바 있는 제헌국회의원들과 동격의 정부서훈(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

#### 민세 안재홍 선생의 생애

민세 안재홍 선생은 1891년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에서 태어나 일본 와 세다대학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1919년 3·1 운동 직후 국내외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대한청년외교단' 활동으로 3년 육 고를 치르신 아래, 일제 치하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 7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르신 한 국독립운동사의 거목이다.

민세는 1924년 시대일보 기자를 시작으로 조선일보 기자, 주필, 사장으로 사실 980편, 시평 470편을 통해 민족언론 수호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또한 1926년 일제 하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운동체인 '신간회'에 총무간사로 참여해서 만해 한용운 선생, 박초 흥명회 선생과 함께 좌우합작의 독립운동에도 커다란 자취를 남겼다.

1930년대 이후에는 일제의 식민사관에 맞서 한국 고대사 연구에 몰두하고, 위당 정인보 선생과 함께 정약용 선생의



조기홍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준비위원장, 경북대학교 총장

'여유당 전서' 교열에 참여, 실학연구운동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1942년에는 한글수호 운동에 노력하다가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지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의 길을 끝까지 지거나간 고절의 국사이다.

해방 후에는 통양 여운형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며 좌우합작의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다양한 이론을 펼친다. 민세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한민족의 기본진로'와 같은 글을 통해, 독특한 '다사리 민주주의'로 해방 직후 이데올로기적 냉전에 대한 비관적 시각과 심각한 좌우대립과 남북분단을 극복하고자 했다.

민세는 미군정의 현실을 인정하고 민정장관을 거쳐 1950년 평택에서 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나 한국전쟁의 발발로 북에 남북되어 남한에 돌아온 그의 인생은 주로 고단과 희생으로 이루어졌다.

민세는 남북화해시대와 민족정신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다.

## 납북된 제2대국회의원 명단

구분	성명	선거구	구분	성명	선거구
1	丘德煥	서천	13	吳夏英	증로 을
2	金用茂	무안 갑	14	元世勳	증구 갑
3	全七星	부산 병	15	柳錫秀	용인
4	全善植	논산 갑	16	尹鍇安	서대문 을
5	朴性宇	삼주 갑	17	李相奐	하동
6	朴癸東	완주 을	18	李宗聖	이천
7	朴昌圭	예산	19	張連松	동대문
8	白秉圭	長濱	20	鄭仁植	광산 을
9	李錫基	정읍 갑	21	張圭晶	영천 을
10	李容勤	창녕	22	趙秉昂	성북
11	黃在浩	광택	23	崔丙柱	부안
12	尹在度	문경			

### III. 해야 할 일

#### 1. 납북의원의 생사확인과 사망자들의 유해송환

그동안 납북자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것은 한국 및 북한 양측의 여러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납북자 가족에 대해 연좌제가 적용돼 관련가족들이 납북자들의 생사문제와 송환에 대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 납북자 가족들에 따르면 이 문제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관심으로 관련자료의 축적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또한 이 문제를 다루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송환 요구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더욱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은 북한이 납북자를 인

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북한은 나아가 납북자들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회유·협박·순차시켜 대남방송 등 공작에 활용함으로써 납북자 가족의 입지를 더욱 악화시켰던 것이다. 북한체제에 저항하는 납북자는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처형된 사례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다.

생사확인 및 사망자들의 유해송환 그리고 납북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회해 보상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도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51명의 제헌의원과 23명의 2대 국회의원 중 생존자가 있을 확률은 거의 없다. 적어도 돌아가신 날짜와 돌아가실 무렵의 거주지와 상황만이라도 가족에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 2. 납북 제헌국회의원의 정부서훈 추진

제헌국회의원들은 정부로부터 우리나라의 헌법을 제정하여 정부수립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공으로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1969년 12월 17일에 158명이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납북된 제헌국회의원 51명에 대하여서는 서훈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유가족들의 괴로움 한을 풀어주고 명예회복을 시켜주는 차원에서 기서훈한 바 있는 제헌국회의원들과 동격의 정부서훈(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 [남북된 제2대 국회의원(27명)]

구덕환(丘德煥) 서천. 경성의전 졸업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제헌의원.  
 김홍무(金用茂) 무안. 일본 중앙대학 법과 졸. 대법원장. 변호사  
 김웅진(金雄鎮) 수원. 수원농림졸,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회, 제헌의원.  
 김칠성(金七星) 부산. 독립운동가  
 김현식(金憲植) 논산. 논산소방서장  
 박성우(朴成宇) 상주. 상주농집학교 졸  
 박영래(朴榮來) 완주. 면장  
 박철규(朴哲奎) 예산. 대한교련 사무국장  
 백상규(白象圭) 장단. 보전교수, 적십자사 부총재  
 신석빈(辛錫斌) 정읍. 전북도 내무국장  
 신용훈(辛容勳) 창령. 경성법전 졸  
 안재홍(安在鴻) 평택. 조선일보 사장, 민정장관, 국민당 당수  
 양재하(梁在夏) 문경. 전준요원, 언론사 사장  
 오하영(吳夏英) 종로. 33인의 한사람  
 원세훈(元世勳) 중구. 독립운동가, 한민당 총무  
 유기수(柳穎秀) 용인. 경성사법 졸  
 윤기섭(尹基燮) 서대문. 신홍군관학교 교관  
 이상경(李相慶) 하동. 명치대 법과 졸  
 이중성(李宗聖) 이천. 대법관, 검찰총장  
 장연송(張連松) 동대문. 과정정부 입법의원  
 정인식(鄭仁植) 광산. 광산군 지산면장  
 조규설(曹圭商) 영천. 대한식량苧단 부이사장  
 조소양(趙素昂) 성북. 상해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졸, 면장, 제헌의원.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중상, 제헌의원.  
 최병주(崔丙柱) 부안. 대법관

## [남북된 재헌의원(52명)]

강기문(姜基文) 산청. 일본 대판대 상과 중퇴, 대한건설회사장  
 강육중(姜旭中) 함안. 변호사. 조선법학회 상무이사. 민족청년단 이사  
 구중희(具中希) 창령. 보성중, 와세다 고등사범 영문과졸, 목포여고 · 마산중 교장  
 권태희(權泰熙) 김천. 승실전문, 경도 동지사대 신학교, 목사, 김천중교장.  
 김경도(金景道) 함양. 사범학교졸, 교원, 함양석산면장, 대한독립국민회.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김교현(金敎賢) 보은. 수원농림졸, 면장, 중학교장.  
 김덕열(金德烈) 양주. 중앙고보, 일본중앙대, 면장, 미군정청관체처 감찰관.  
 김동원(金東元) 용산. 평양대성학원설립, 제헌국회부의장, 2대의원.

[남북된 제2대 국회의원(27명)]

2001. 6. 25  
최병주 국회의원 청문회  
총 67명

구덕환(丘德煥) 서천. 경성의전 졸업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제헌의원.  
 김용무(金用茂) 무안. 일본 중앙대학 법과 졸. 대법원장, 변호사  
 김웅진(金雄鎮) 수원. 수원농림졸,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장, 제헌의원.  
 김칠성(金七星) 부산. 독립운동가  
 김현식(金憲植) 논산. 논산소방서장  
 박성우(朴成宇) 상주. 상주농집학교 졸  
 박영래(朴榮來) 완주. 면장  
 박철규(朴哲奎) 예산. 대한교련 사무국장  
 백상규(白象圭) 장단. 보전교수, 적십자사 부총재  
 신석민(辛錫民) 정읍. 전북도 내무국장  
 신용훈(辛容勳) 창령. 경성법전 졸  
 안재홍(安在鴻) 평택. 조선일보 사장, 민정장관, 국민당 당수  
 양재하(梁在度) 문경. 건준요원, 언론사 사장  
 오하영(吳夏英) 종로. 33인의 한 사람  
 원세훈(元世勳) 중구. 독립운동가, 한민당 총무  
 유기수(柳驥秀) 용인. 경성사법 졸  
 윤기섭(尹琦燮) 서대문. 신흥군관학교 교관  
 이상경(李相慶) 하동. 명치대 법과 졸  
 이종성(李宗聖) 이천. 대법관, 검찰총장  
 장연송(張連松) 동대문. 과정정부 입법의원  
 정인식(鄭仁植) 광산. 광산군 지산면장  
 조규설(曹圭善) 영천. 대한식량영단 부이사장  
 조소앙(趙素昇) 성북. 상해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졸, 면장, 제헌의원.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제헌의원.  
 최병주(崔丙柱) 부안. 대법관

[남북된 제헌의원(52명)] 40명으로 추소 중복 2대 국회의원 4명 X 제1회  
국회 드록 8명 S 제2회

▣ 강기문(姜基文) 산청. 일본 대판대 상과 중퇴, 대한건설회사장  
 ■ 강옥중(姜旭中) 함안. 변호사. 조선법학회 상무이사. 민족청년단 이사  
 구중희(具中會) 창령. 보성중, 와세다 고등사범 영문과졸, 목포여고·마산중 교장  
 권태희(權泰熙) 김천. 승실전문, 경도 동지사대 신학교, 목사, 김천중교장.  
 × 김경도(金景道) 함양. 사범학교졸, 교원, 함양석산면장, 대한독립국민회.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김교현(金敎賢) 보은. 수원농림졸, 면장, 중학교장.  
 김덕열(金德烈) 양주. 중앙고보, 일본중앙대, 면장, 미군정청관재처 감찰관.  
 김동원(金東元) 용산. 평양대성학원설립, 제헌국회부의장, 2대의원.

- △ 김병희(金秉會) 진도. 소학교줄, 보통문관시험합격, 목포일보, 대한노총.  
    김상덕(金尙德) 고령. 와세다경경학부, 경신중학교장.
- △ 김약수(金若水) 동래. 경남공업학교, 일본대, 긴령군정서 군사위원, 부의장.  
    김영동(金永東) 고창. 고창고줄, 자동차판매업, 조선전업 근무, 교제위원장.
- △ 김옥주(金沃周) 광양. 양정고보줄, 와세다법과,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김용현(金用鉉) 무안. 중앙중줄, 일본중앙대 법학부, 한민당.  
    김우식(金禹植) 달성. 북경대출, 가독교 장로, 중학교장.
- △ 김웅진(金雄鎮) 수원. 수원농림줄,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장, 2대 의원.  
    김장열(金長烈) 완도. 일본대 정치학부, 라주경찰서장, 경찰청총무과장.  
    김중기(金仲基) 장흥. 광주사법줄, 교사, 장흥읍장.  
    김효석(金孝錫) 합천. 명치대법학부, 은행지점장, 내무부장관.
- △ 노일환(盧鎰煥) 순창. 배재고보줄, 보성전문 상과줄, 국회프락치사건 현투.  
    박윤원(朴允源) 남해. 여수수산중줄, 만주 대동대출, 기사생활 9년.  
    박종환(朴鍾煥) 청도. 일본 중앙대법과, 정미업, 미군정청 고시과장.
- △ 배중혁(裴重赫) 봉화. 동경대동중줄, 목제회사근무, 대동청년단.  
    백관수(白寬洙) 고창. 경성법전, 와세다줄, 동아일보사장, 2·8 독립선언 주도.  
    서정희(徐廷熙) 포천. 한문수학, 관립 영어학교줄, 항일 독립운동.  
    송창식(宋昌植) 이천. 한문수학, 면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신상학(辛相學) 김해. 소학교줄, 상업, 만족청년운동, 독촉국민회.  
    신성균(申性均) 전주. 와세다전문부, 곡성면장, 한독당 전북위원장.  
    오용국(吳龍國) 제주. 중줄, 입법의원.  
    오택관(吳澤寬) 울진. 평양신학교, 목사, 독립운동.
- △ 오택열(吳宅烈) 영덕. 소학교줄, 영덕주조회사장, 입법의원.  
    이강우(李康雨) 진주. 일본대, 3·1운동 참가, 진주고보 교원, 광업.  
    이구수(李龜洙) 고성. 소학교줄, 신문기자생활 4년.  
    이만근(李萬根) 청원. 청주고보, 경찰청 부정장.
- △ 이문원(李文源) 익산. 전주사법, 한독당 조직부장, 국회프락치사건 징역12년.  
    이석(李錫) 경주. 휘문고보줄, 명치대 법문학부, 대한독촉국민회.  
    이주형(李周衡) 밀양. 경진학교 설립운영, 밀양중교장, 독촉국민회.  
    장병만(張炳晚) 칠곡. 명치대, 농업, 건준참여, 대한독촉국민회.  
    정광호(鄭光好) 광주(光州). 명치대, 재동경 조선청년단 대표, 광주시장.  
    조병한(趙炳漢) 문경. 대구고보줄, 동경제대 법학부줄.  
    조옥현(趙玉鉉) 순천. 상해 남경대출, 대한독촉국민회.
- △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줄, 면장, 2대 의원.  
    조중현(趙重顯) 장단. 보성전문줄, 광업.
- △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2대 의원.  
    최석홍(崔錫洪) 영주. 대구상업줄, 영주금융조합, 대동청년단.
- △ 최태규(崔泰奎) 정선. 동경전수대 3년 수료, 대동신문기자.  
    한식범(韓錫範) 부산. 부산상업줄, 독립운동, 부산서부 치안대장.  
    허영호(許永鎬) 부산갑. 일본 대정대학 불교과 졸업, 초대 동국대 학장  
    홍순옥(洪淳玉) 제천. 의사  
    홍희종(洪嬉鍾) 김제. 한문수학, 조선민족 청년단.  
    황윤호(黃潤鎬) 전양. 진주중학줄, 면장,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 [남북된 제2대 국회의원(27명)]

구덕환(丘德煥) 서천. 경성의전 졸업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제헌의원.  
 김용무(金用茂) 무안. 일본 중앙대학 법과 졸. 대법원장, 변호사  
 김웅진(金雄鉉) 수원. 수원농림졸,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장, 제헌의원.  
 김칠성(金七星) 부산. 독립운동가  
 김현식(金憲植) 논산. 논산소방서장  
 박성우(朴成宇) 상주. 상주농집학교 졸  
 박영래(朴榮來) 완주. 면장  
 박철규(朴哲奎) 예산. 대한교련 사무국장  
 백상규(白象圭) 장단. 보전교수, 적십자사 부총재  
 신석빈(辛錫斌) 정읍. 전북도 내무국장  
 신용훈(辛容勛) 창령. 경성법전 졸  
 안재홍(安在鴻) 평택. 조선일보 사장, 민정장관, 국민당 당수  
 양재하(梁在廬) 문경. 건준요원, 언론사 사장  
 오하영(吳夏英) 종로. 33인의 한사람  
 원세훈(元世勳) 중구. 독립운동가, 한민당 총무  
 유기수(柳驥秀) 용인. 경성사범 졸  
 윤기섭(尹琦燮) 서대문. 신흥군관학교 교관  
 이상경(李相慶) 하동. 명치대 법과 졸  
 이종성(李宗聖) 이천. 대법관, 검찰총장  
 장연송(張連松) 동대문. 과정청부 입법의원  
 정인식(鄭仁植) 광산. 광산군 지산면장  
 조규설(曹圭商) 영천. 대한식량영단 부이사장  
 조소昂(趙素昂) 성북. 상해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졸, 면장, 제헌의원.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제헌의원.  
 최병주(崔丙柱) 부안. 대법관

## [남북된 제헌의원(52명)] (40명) 제외 X 2대 국회의원 4명 △ 국회의원 5명]

- △ 강기문(姜基文) 산청. 일본 대판대 상과 중퇴, 대한건설회사장
- △ 강육중(姜旭中) 함안. 변호사. 조선법학회 상무이사. 민족청년단 이사
- △ 구중희(具中希) 창령. 보성중, 와세다 고등사범 영문과졸, 목포여고·마산중 교장
- △ 권태희(權泰義) 김천. 숭실전문, 경도 동지사대 신학교, 목사, 김천중교장.
- △ 김경도(金景道) 합양. 사범학교졸, 교원, 함양석산면장, 대한독립국민회.
- △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 △ 김교현(金敎賢) 보은. 수원농림졸, 면장, 중학교장.
- △ 김덕열(金德烈) 양주. 중앙고보, 일본중앙대, 면장, 미군정청관제처 감찰관.
- △ 김동원(金東元) 용산. 평양대성학원설립, 제헌국회부의장, 2대의원.

## [남북된 제2대 국회의원(27명)]

구덕환(丘德煥) 서천. 경성의전 출입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제헌의원.  
 김용무(金用茂) 무안. 일본 중앙대학 법과 졸. 대법원장, 변호사  
 김웅진(金雄鎮) 수원. 수원농림졸,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장, 제헌의원.  
 김칠성(金七星) 부산. 독립운동가  
 김현식(金憲植) 논산. 논산소방서장  
 박성우(朴成宇) 상주. 상주농집학교 졸  
 박영래(朴榮來) 완주. 면장  
 박철규(朴哲奎) 예산. 대한교련 사무국장  
 백상규(白象圭) 장단. 보전교수, 적십자사 부총재  
 신석빈(辛錫斌) 정읍. 전북도 내무국장  
 신용훈(辛容勳) 창령. 경성법전 졸  
 안재홍(安在鴻) 평택. 조선일보 사장, 민정장관, 국민당 당수  
 양재하(梁在廬) 문경. 건준요원, 언론사 사장  
 오하영(吳夏英) 종로. 33인의 한 사람  
 원세훈(元世勳) 중구. 독립운동가, 한민당 총무  
 유기수(柳驥秀) 용인. 경성사범 졸  
 윤기섭(尹基燮) 서대문. 신흥군관학교 교관  
 이상경(李相慶) 하동. 명치대 법과 졸  
 이종성(李宗聖) 이천. 대법관, 검찰총장  
 장연송(張連松) 동대문. 과정정부 입법의원  
 정인식(鄭仁植) 광산. 광산군 지산면장  
 조규설(曹圭燦) 영천. 대한식량영단 부이사장  
 조소昂(趙素昂) 성북. 상해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졸, 면장, 제헌의원.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제헌의원.  
 최병주(崔丙柱) 부안. 대법관

## [남북된 제헌의원(52명)]

강기문(姜基文) 산청. 일본 대판대 상과 중퇴, 대한건설회사장  
 강옥중(姜旭中) 함안. 변호사. 조선법학회 상무이사. 민족청년단 이사  
 구중희(具中希) 창령. 보성중, 와세다 고등사범 영문과 졸, 목포여고 · 마산중 교장  
 권태희(權泰熙) 김천. 숭실전문, 경도 동지사대 신학교, 목사, 김천중교장.  
 김경도(金景道) 합양. 사범학교졸, 교원, 함양석산면장, 대한독립국민회.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김교현(金敎賢) 보은. 수원농림졸, 면장, 중학교장.  
 김덕열(金德烈) 양주. 중앙고보, 일본중앙대, 면장, 미군정청관재처 감찰관.  
 김동원(金東元) 용산. 평양대성학원설립, 제헌국회부의장, 2대의원.

김병희(金秉會) 전도. 소학교줄, 보통문관시험합격, 목포일보, 대한노총.  
김상덕(金尙德) 고령. 와세다경경학부, 경신중학교장.  
김약수(金若水) 동래. 경남공업학교, 일본대, 길림군정서 군사위원, 부의장.  
김영동(金永東) 고창. 고창고줄, 자동차판매업, 조선전업 근무, 교제위원장.  
김옥주(金沃周) 광양. 양성고보줄, 와세다법과,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김용현(金用鉉) 무안. 중앙중줄, 일본중앙대 법학부, 한민당.  
김우식(金禹植) 달성. 북경대출, 가독교 장로, 중학교장.  
김웅진(金雄鎮) 수원. 수원농림줄, 만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장, 2대 의원.  
김장열(金長烈) 완도. 일본대 정치학부, 라주경찰서장, 경찰청총무과장.  
김중기(金仲基) 강릉. 광주사법줄, 교사, 강릉읍장.  
김효석(金孝錫) 합천. 명치대법학부, 은행지점장, 내무부장관.  
노일환(盧鎰煥) 순창. 배재고보줄, 보성전문 상과줄, 국회프락치사건 현투.  
박윤원(朴允源) 남해. 여수수산중줄, 만주 대동대출, 기사생활 9년.  
박종환(朴鍾煥) 청도. 일본 중앙대법과, 경마업, 미군정청 고시과장.  
배중혁(裴重赫) 통화. 동경대동중줄, 목제회사근무, 대동청년단.  
백관수(白寬洙) 고창. 경성법전, 와세다줄, 동아일보사장, 2·8 독립선언 주도.  
서정희(徐廷熙) 포천. 한문수학, 관립 영어학교줄, 항일 독립운동.  
송창식(宋昌植) 이천. 한문수학, 면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신상학(辛相學) 김해. 소학교줄, 상업, 민족청년운동, 독촉국민회.  
신성균(申性均) 전주. 와세다전문부, 곡성면장, 한독당 전북위원장.  
오용국(吳龍國) 제주. 중줄, 입법의원.  
오택관(吳澤寬) 용진. 평양신학교, 목사, 독립운동.  
오택열(吳宅烈) 영덕. 소학교줄, 영덕주조회사장, 입법의원.  
이강우(李康雨) 진주. 일본대, 3·1운동 참가, 진주고보 교원, 광업.  
이구수(李龜洙) 고성. 소학교줄, 산문기자생활 4년.  
이만근(李萬根) 청원. 청주고보, 경찰청 부청장.  
이문원(李文源) 익산. 전주사법, 한독당 조직부장, 국회프락치사건 징역12년.  
이석(李錫) 경주. 휘문고보줄, 명치대 법문학부, 대한독촉국민회.  
이주형(李周衡) 밀양. 청진학교 설립운영, 밀양중교장, 독촉국민회.  
장병만(張炳晚) 철곡. 명치대, 농업, 건준참여, 대한독촉국민회.  
정광호(鄭光好) 광주(光州). 명치대, 제동경 조선청년단 대표, 광주시장.  
조병한(趙炳漢) 문경. 대구고보줄, 동경제대 법학부줄.  
조옥현(趙玉鉉) 순천. 상해 남경대출, 대한독촉국민회.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줄, 면장, 2대 의원.  
조중현(趙重顯) 장단. 보성전문줄, 광업.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2대 의원.  
최석홍(崔錫洪) 영주. 대구상업줄, 영주금융조합, 대동청년단.  
최태규(崔泰奎) 정선. 동경전수대 3년 수료, 대동신문기자.  
한식범(韓錫範) 부산. 부산상업줄, 독립운동, 부산서부 치안대장.  
허영호(許永鈞) 부산갑. 일본 대정대학 불교과 졸업. 초대 동국대 학장  
홍순옥(洪淳玉) 제천. 의사  
홍희종(洪熙鍾) 김제. 한문수학, 조선민족 청년단.  
황유호(黃潤鎬) 전양. 전주중학교, 면장,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 △ 김병희(金秉會) 진도. 소학교졸, 보통문관시험합격, 목포일보, 대한노총.
- △ 김상덕(金尙德) 고령. 와세다경경학부, 경신중학교장.
- △ 김약수(金若水) 동래. 경남공업학교, 일본대, 긴령군정서 군사위원, 부의장.
- △ 김영동(金永東) 고창. 고창고졸, 자동차판매업, 조선전업 근무, 교체위원장.
- △ 김옥주(金沃周) 광양. 양정고보졸, 와세다법과,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 △ 김용현(金用鉉) 부안. 중앙중졸, 일본중앙대 법학부, 한민당.
- △ 김우식(金禹植) 달성. 북경대학, 기독교 장로, 중학교장.
- △ 김웅진(金雄鎮) 수원. 수원농림줄,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회, 2대 의원.
- △ 김장열(金長烈) 완도. 일본대 정치학부, 라주경찰서장, 경찰청총무과장.
- △ 김중기(金仲基) 강릉. 광주사범졸, 교사, 강릉읍장.
- △ 김효석(金孝錫) 합천. 명치대법학부, 은행지점장, 내무부장관.
- △ 노일환(盧鎰煥) 순창. 배재고보졸, 보성전문 상과졸, 국회프락치사건 현투.
- △ 박운원(朴允源) 남해. 여수수산중졸, 만주 대동대학, 기사생활 9년.
- △ 박종환(朴鍾煥) 청도. 일본 중앙대법과, 정미업, 미군정청 고시과장.
- △ 배중혁(裊重赫) 봉화. 동경대동중졸, 목제회사근무, 대동청년단.
- △ 백관수(白寬洙) 고창. 경성법전, 와세다졸, 동아일보사장, 2·8 독립선언 주도.
- △ 서정희(徐廷熙) 포천. 한문수학, 관립 영어학교졸, 항일 독립운동.
- △ 송창식(宋昌植) 이천. 한문수학, 면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 신상학(辛相學) 김해. 소학교졸, 상업, 민족청년운동, 독촉국민회.
- △ 신성균(申性均) 전주. 와세다전문부, 곡성면장, 한독당 전북위원회.
- △ 오용국(吳龍國) 제주. 중졸, 입법의원.
- △ 오택관(吳澤寬) 용진. 평양신학교, 목사, 독립운동.
- △ 오택열(吳宅烈) 영덕. 소학교졸, 영덕주조회사장, 입법의원.
- △ 이강우(李康雨) 진주. 일본대, 3·1운동 참가, 진주고보 교원, 광업.
- △ 이구수(李龜洙) 고성. 소학교졸, 산문기자생활 4년.
- △ 이만근(李萬根) 청원. 청주고보, 경찰청 부청장.
- △ 이문원(李文源) 익산. 전주사범, 한독당 조직부장, 국회프락치사건 징역12년.
- △ 이석(李錫) 경주. 휘문고보졸, 명치대 법문학부, 대한독촉국민회.
- △ 이주형(李周衡) 밀양. 정진학교 설립운영, 밀양중교장, 독촉국민회.
- △ 장병만(張炳晚) 칠곡. 명치대, 농업, 건준참여, 대한독촉국민회.
- △ 정광호(鄭光好) 광주(光州). 명치대, 재동경 조선청년단 대표, 광주시장.
- △ 조병한(趙炳漢) 문경. 대구고보졸, 동경제대 법학부졸.
- △ 조옥현(趙玉鉉) 순천. 상해 남경대학, 대한독촉국민회.
- △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졸, 면장, 2대 의원.
- △ 조중현(趙重顯) 장단. 보성전문졸, 광업.
- △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2대 의원.
- △ 최석홍(崔錫洪) 영주. 대구삼업졸, 영주금융조합, 대동청년단.
- △ 최태규(崔泰奎) 정선. 동경전수대 3년 수료, 대동신문기자.
- △ 한석범(韓錫範) 부산. 부산상업졸, 독립운동, 부산서부 치안대장.
- △ 허영호(許永鎬) 부산갑. 일본 대정대학 불교과 졸업. 초대 동국대 학장.
- △ 홍순우(洪淳玉) 제천. 의사.
- △ 홍희종(洪熙鍾) 김제. 한문수학, 조선민족 청년단.
- △ 황윤호(黃潤鎬) 전양. 진주중학졸, 면장,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 김병희(金秉會) 진도. 소학교줄, 보통문관시험합격, 목포일보, 대한노총.
- 김상덕(金尙德) 고령. 와세다경경학부, 경신중학교장.
- 김약수(金若水) 동래. 경남공업학교, 일본대, 길림군정서 군사위원, 부의장.
- 김영동(金永東) 고창. 고창고줄, 자동차판매업, 조선전업 근무, 교제위원장.
- 김옥주(金沃周) 광양. 양정고보줄, 와세다법과,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 김용현(金用鉉) 무안. 중앙중줄, 일본중앙대 법학부, 한민당.
- 김우식(金禹植) 달성. 북경대줄, 기독교 장로, 중학교장.
- ✓ 김웅진(金雄鎮) 수원. 수원농립줄,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회, 2대 의원.
- 김장열(金長烈) 완도. 일본대 정치학부, 라주경찰서장, 경찰청총무과장.
- 김중기(金仲基) 장흥. 광주사법줄, 교사, 장흥읍장.
- 김효석(金孝錫) 압천. 명치대법학부, 은행지점장, 내무부장관.
- 노일환(盧鎰煥) 순창. 배재고보줄, 보성전문 상과줄, 국회프락치사건 연루.
- 박윤원(朴允源) 남해. 여수수산중줄, 만주 대동대줄, 기사생활 9년.
- 박종환(朴鍾煥) 청도. 일본 중앙대법과, 정미업, 미군정청 고시과장.
- 배중혁(裔回赫) 봉화. 동경대동중줄, 복제회사근무, 대동청년단.
- 백관수(白寬洙) 고창. 경성법전, 와세다줄, 동아일보사장, 2·8 독립선언 주도.
- 서정회(徐廷熙) 포천. 한문수학, 관립 영어학교줄, 항일 독립운동.
- 송창식(宋昌植) 이천. 한문수학, 면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신상학(辛相學) 김해. 소학교줄, 상업, 민족청년운동, 독촉국민회.
- 신성균(申性均) 전주. 와세다전문부, 곡성면장, 한독당 전북위원회.
- 오용국(吳龍國) 제주. 중줄, 입법의원.
- 오택관(吳澤寬) 용진. 평양신학교, 목사, 독립운동.
- 오택열(吳宅烈) 영덕. 소학교줄, 영덕주조회사장, 입법의원.
- 이강우(李康雨) 진주. 일본대, 3·1운동 참가, 진주고보 교원, 광업.
- 이구수(李龜洙) 고성. 소학교줄, 신문기자생활 4년.
- 이만근(李萬根) 청원. 청주고보, 경찰청 부청장.
- 이문원(李文源) 익산. 전주사법, 한독당 조직부장, 국회프락치사건 징역12년.
- 이석(李錫) 경주. 휘문고보줄, 명치대 법문학부, 대한독촉국민회.
- 이주형(李周衡) 밀양. 정진학교 설립운영, 밀양중교장, 독촉국민회.
- 장병만(張炳晚) 칠곡. 명치대, 농업, 건준참여, 대한독촉국민회.
- 정광호(鄭光好) 광주(光州). 명치대, 재동경 조선청년단 대표, 광주서장.
- 조명한(趙炳漢) 문경. 대구고보줄, 동경제대 법학부줄.
- 조옥현(趙玉鉉) 순천. 상해 남경대줄, 대한독촉국민회.
- ✓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줄, 면장, 2대 의원.
- 조중현(趙重顯) 장단. 보성전문줄, 광업.
- ✓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2대 의원.
- 최석홍(崔錫洪) 영주. 대구상업줄, 영주금융조합, 대동청년단.
- 최태규(崔泰奎) 정선. 동경전수대 3년 수료, 대동선문기자.
- 한석범(韓錫範) 부산. 부산상업줄, 독립운동, 부산서부 치안대장.
- 허영호(許永鎬) 부산갑. 일본 대정대학 불교과 졸업. 초대 동국대 학장
- 홍순옥(洪淳玉) 제천. 의사
- 홍희종(洪熙鍾) 김제. 한문수학, 조선민족 청년단.
- 황윤호(黃潤鎬) 진양. 진주중학줄, 면장,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2017  
11/11

# 1대. 그대 국회의원 경단

## 1대국회의원 (제1회 국회의원)

강기문 강달수 강선명 강옥중 과상훈 구중희 권병노 권태욱 권태희  
김경도 김경배 김광준 김교중 김교현 김기철 김덕열 김도연 김동원  
김동준 김명동 김문평 김병화 김봉두 김봉조 김상덕 김상돈 김상순  
김상호 김수선 김약수 김영기 김영동 김옥주 김용재 김용현 김용화  
김우식 김웅권 김웅진 김의기 김의노 김인식 김장열 김재학 김종문  
김종선 김준연 김중기 김진구 김 철 김철수 김태수 김효석 나용균  
남궁현 노일환 류래완 류성갑 류준상 류홍열 문시환 민경식 박기운  
박상영 박순석 박우경 박율원 박종남 박종환 박 준 박찬현 박해극  
박해정 배중혁 배 헌 백관수 백남채 백형남 서상일 서성달 서순영  
서용길 서우석 서이환 서정희 성낙서 손재학 송봉해 송진백 송창식  
송필만 신풍균 신방현 신상학 신성균 신의희 신현돈 신현모 안준상  
양병직 연병호 오기열 오석주 오용국 오택관 오택열 원용균 원용한  
원장길 유진홍 육홍균 윤병구 윤석구 윤재근 윤재욱 윤치영 이강우  
이구수 이남규 이만근 이문원 이범교 이병관 이병국 이상돈 이 석  
이석주 이성득 이성우 이성학 이승만 이영준 이요한 이원홍 이유선  
이윤영 이의상 이 인 이재학 이재형 이정기 이정래 이종근 이종련  
이종순 이주형 이진수 이항발 이호석 이훈구 임석규 임영신 장기영  
장 면 장병만 장홍엽 전진한 정광호 정구삼 정균식 정도영 정우일  
정 준 정진근 정해준 정현모 조국현 조규갑 조병한 조봉암 조영규  
조옥현 조재면 조종승 조중현 조한백 조현영 주기용 지청천 진직현  
진현식 차경모 최국현 최규옥 최범술 최봉식 최석홍 최석화 최운교  
최윤동 최창섭 최태규 최현길 표현태 한석범 한암회 허영호 허 정  
홍길선 홍범희 홍성하 홍순영 홍순옥 홍익표 홍희종 황두연 황병규  
황윤호 황호현

## 2대국회의원

강경옥 강창용 고영환 과상훈 과의영 과태진 구덕환 구을희 권병노  
권오훈 권중돈 권태욱 김경배 김광준 김낙오 김동성 김명동 김명수  
김문용 김범부 김병진 김봉재 김봉조 김상현 김수학 김시현 김양수  
김영선 김용무 김용우 김용화 김우성 김웅진 김의준 김의기 김의노  
김인선 김인태 김정기 김정두 김정식 김정실 김제능 김종순 김종열  
김종희 김준태 김준희 김지태 김철성 김태희 김택술 김택천 김판석  
김현식 김형덕 김홍용 남송학 노기용 류기수 류덕천 류인곤 류 흥  
민영복 박기배 박만원 박민기 박성우 박성하 박세동 박순천 박승하  
박양재 박영래 박영출 박정규 박정근 박제환 박철규 박철웅 박충식  
박관봉 방만수 배상연 배은희 백남식 백상규 변광호 변진갑 서민호  
서범석 서상국 서상덕 서상호 서이환 서장주 성득환 소선규 송방용  
신각휴 신풍균 신석빈 신용숙 신용훈 신의희 신증목 안만복 안상한  
안용대 안재홍 양병일 양우정 양재하 엄병학 엄상섭 여영복 여운홍  
연병호 오성환 오위영 오의관 오하영 우 문 원세훈 유승준 육홍균

- 김병희(金秉會) 진도. 소학교졸, 보통문관시험합격, 목포일보, 대한노총.
- 김상덕(金尚德) 고령. 와세다경경학부, 경신중학교장.
- 김약수(金若水) 동래. 경남공업학교, 일본대, 길림군정서 군사위원, 부의장.
- 김영동(金永東) 고창. 고창고졸, 자동차판매업, 조선전업 근무, 교체위원장.
- 김옥주(金沃周) 광양. 양정고보졸, 와세다법과, 국회프락치사건 징역6년.
- 김용현(金用鉉) 무안. 중앙중졸, 일본중앙대 법학부, 한민당.
- 김우식(金禹植) 달성. 북경대출, 기독교 장로, 중학교장.
- 김웅진(金雄鎭) 수원. 수원농림졸,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회, 2대 의원.
- 김장열(金長烈) 완도. 일본대 정치학부, 라주경찰서장, 경찰청총무과장.
- 김증기(金仲基) 강릉. 광주사법졸, 교사, 장흥읍장.
- 김효석(金孝錫) 합천. 명치대법학부, 은행지점장, 내무부장관.
- 노일환(盧鎰煥) 순창. 배재고보졸, 보성전문 상과졸, 국회프락치사건 연루.
- 박운원(朴允源) 남해. 여수수산중졸, 만주 대동대출, 기사생활 9년.
- 박종환(朴鍾煥) 청도. 일본 중앙대법과, 정미업, 미군정청 고시과장.
- 배중혁(裴重赫) 봉화. 동경대동중졸, 목제회사근무, 대동청년단.
- 백관수(白寬洙) 고창. 경성법전, 와세다졸, 동아일보사장, 2·8 독립선언 주도.
- 서정희(徐廷熙) 포천. 한문수학, 관립 영어학교졸, 항일 독립운동.
- 송창식(宋昌植) 이천. 한문수학, 면장,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신상학(辛相學) 김해. 소학교졸, 상업, 민족청년운동, 독촉국민회.
- 신성균(申性均) 전주. 와세다전문부, 곡성면장, 한독당 전북위원장.
- 오용국(吳龍國) 제주. 중졸, 입법의원.
- 오택관(吳澤寬) 용진. 평양신학교, 목사, 독립운동.
- 오택열(吳宅烈) 영덕. 소학교졸, 영덕주조회사장, 입법의원.
- 이강우(李康雨) 진주. 일본대, 3·1운동 참가, 전주고보 교원, 광업.
- 이구수(李龜洙) 고성. 소학교졸, 신문기자생활 4년.
- 이만근(李萬根) 청원. 청주고보, 경찰청 부청장.
- 이문원(李文源) 익산. 전주사법, 한독당 조직부장, 국회프락치사건 경역12년.
- 이석(李錫) 경주. 휘문고보졸, 명치대 법문학부, 대한독촉국민회.
- 이주형(李周衡) 밀양. 경진학교 설립운영, 밀양중교장, 독촉국민회.
- 장병만(張炳晚) 칠곡. 명치대, 농업, 전준참여, 대한독촉국민회.
- 정광호(鄭光好) 광주(光州). 명치대, 재동경 조선청년단 대표, 광주시장.
- 조병한(趙炳漢) 문경. 대구고보졸, 동경제대 법학부졸.
- 조옥현(趙玉鉉) 순천. 상해 남경대출, 대한독촉국민회.
-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졸, 면장, 2대 의원.
- 조중현(趙重顯) 장단. 보성전문졸, 광업.
- 조현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2대 의원.
- 최석홍(崔錫洪) 영주. 대구상업졸, 영주금융조합, 대동청년단.
- 최태규(崔泰奎) 정선. 동경천수대 3년 수료, 대동신문기자. ————— 정인연(任仁淵) (농업)
- 한식범(韓錫範) 부산. 부산상업졸, 독립운동, 부산서부 치안대장.
- 허영호(許永鎬) 부산갑. 일본 대정대학 불교과 졸업. 초대 동국대 학장
- 홍순옥(洪淳玉) 제천. 의사
- 홍희종(洪煥鍾) 김제. 한문수학, 조선민족 청년단.
- 황윤호(黃潤鎬) 진양. 진주중학교, 면장, 국회프락치사건 경역6년.

## [남북된 제2대 국회의원(27명)]

구덕환(丘德煥) 서천. 경성의전 졸업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제헌의원.  
 김용무(金用茂) 무안. 일본 중앙대학 법과 졸. 대법원장, 변호사  
 김웅진(金雄鎮) 수원. 수원농림졸, 반민족행위특별법 기초위원장, 제헌의원.  
 김칠성(金七星) 부산. 독립운동가  
 김현식(金憲植) 논산. 논산소방서장  
 박성우(朴成宇) 상주. 상주농집학교 졸  
 박영래(朴榮來) 완주. 면장  
 박철규(朴哲奎) 예산. 대한교련 사무국장  
 백상규(白象圭) 장단. 보전교수, 적십자사 부총재  
 신석빈(辛錫斌) 정읍. 전북도 내무국장  
 신용훈(辛容勳) 창령. 경성법전 졸  
 안재홍(安在鴻) 평택. 조선일보 사장, 민정장관, 국민당 당수  
 양재하(梁在夏) 문경. 건준요원, 언론사 사장  
 오하영(吳夏英) 종로. 33인의 한사람  
 원세훈(元世勳) 중구. 독립운동가, 한민당 총무  
 유기수(柳驥秀) 용인. 경성사범 졸  
 윤기섭(尹琦燮) 서대문. 신흥군관학교 교관  
 이상경(李相慶) 하동. 명치대 법과 졸  
 이중성(李宗聖) 이천. 대법관, 검찰총장  
 장연송(張連松) 동대문. 과정정부 입법의원  
 정인식(鄭仁植) 광산. 광산군 지산면장  
 조규설(曹圭商) 영천. 대한식량영단 부이사장  
 조소昂(趙素昂) 성북. 상해임시정부 외교부장  
 조종승(趙鍾勝) 단양. 소학교졸, 면장, 제헌의원.  
 조헌영(趙憲泳) 영양. 대구고보, 와세다고사 영문학부, 한약종상, 제헌의원.  
 최병주(崔丙柱) 부안. 대법관

## [남북된 제헌의원(52명)]

강기문(姜基文) 산청. 일본 대판대 상과 중퇴, 대한건설회사장  
 강옥중(姜旭中) 함안. 변호사. 조선법학회 상무이사. 민족청년단 이사  
 구중희(具中希) 창령. 보성중, 와세다 고등사범 영문과졸, 목포여고 · 마산중 교장  
 권태희(權泰義) 김천. 숭실전문, 경도 동지사대 신학교, 목사, 김천중교장.  
 김경도(金景道) 합양. 사범학교졸, 교원, 함양석산면장, 대한독촉국민회.  
 김경배(金庚培) 연백. 평양대성중졸, 독립운동, 연백군수.  
 김교현(金敎賢) 보은. 수원농림졸, 면장, 중학교장.  
 김덕열(金德烈) 양주. 중앙고보, 일본중앙대, 면장, 미군정청관제처 감찰관.  
 김동원(金東元) 용산. 평양대성학원설립, 제헌국회부의장, 2대의원.

윤기섭 윤길중 윤 담 윤성순 윤영선 윤재근 윤치영 윤택중 이갑성  
이교선 이교승 이규갑 이금종 이도영 이동환 이범승 이병홍 이상경  
이상철 이석기 이시목 이용설 이재학 이재형 이종련 이종성 이종수  
이종순 이종영 이종욱 이종현 이진수 이채오 이춘기 이충환 이판열  
이학림 이한창 이협우 이호근 임기봉 임영신 임용순 임홍순 장건상  
장연송 장택상 장홍엽 전진한 정기원 정남국 정문홍 정순조 정인식  
정일형 정재완 정현조 정현주 조경규 조광섭 조규설 조대연 조병문  
조봉암 조소양 조 순 조시원 조정훈 조종승 조주영 조현영 지연해  
지청천 최국현 최면수 최병주 최성웅 최원봉 최원수 최원호 최윤호  
최주일 최현길 태완선 하만복 한국원 한필수 홍길선 홍익표 홍창섭  
황병규 황성수